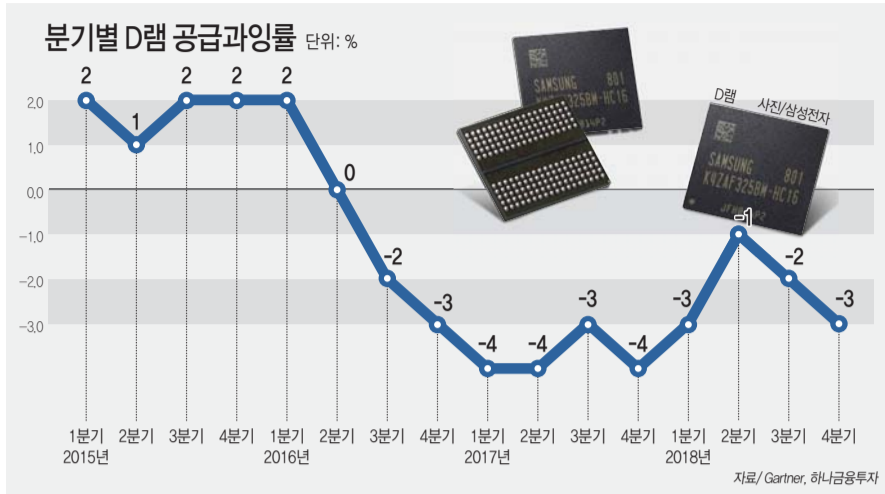


‘증시의 손흥민’ 삼성... ‘공격수’ 현대차·SK하이닉스

월드컵과 한국증시

포지션별 국가대표기업

삼성, 코스피 시총 20% 차지
2분기 영업이익 16조 육박 기대
현대차, 내수·中 판매호조 지속
SK하이닉스, 반도체 호황 날개



“역사 그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운운을 갖고 있다(History does'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큰 영향을 주곤 한다. 14일 개막하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심리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는 주식투자에서 역사를 통해 지혜를 깨우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 월드컵으로 인한 투자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증시 역시 대회 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국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스트라이커’로 한국 증시를 이끌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은 본다. 그 뒤를 ‘중원의 공격수’로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가 받쳐줄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대표팀 발 끝에서 나올 경제적 효과는?

14일 러시아월드컵이 개막한다. 월드컵이 열리면 전 세계에 공보다 돈이 더 많

이 굴러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인원 400억명이 TV 앞에 앉아 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큰돈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를 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원이 넘는다. 한·일 월드컵은 투자·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700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600억원 등 모두 26조46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도 경기장 건설 등의 효과 덕분에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대회 공식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한국이 4강진화를 펼친 덕에 현대차는 6조~7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거뒀다.

월드컵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회기간 주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독 월드컵만 되면 빛을 보는 수혜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기간 유통업과 서비스업종은 모두 코스피 평균 수익률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실제로 2006년 월드컵 기간 코스피는 5.2% 올랐지만, 유통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9.5% 5.6%의 수익률을 보였다.

◆ 삼성전자, 하반기 韓 증시 이끌 ‘스트라이커’

월드컵 이후 증시를 주도할 스트라이커로 삼성전자를 꼽는다.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영업 성적만 보면 이번은 없어 보인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6조원(15조7137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 증시를 넘어 한국경제의 제1선발로도 손색없다는 평가도 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경제전망”에서 “한국과 글로벌 수출 경기에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중반께 누적 4개 분기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이 역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

운데 9번째, 아시아에선 일본·호주에 이어 3번째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계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GDP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으로 이런 추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며 “한국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당기에 끝날 이슈가 아닌 만큼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KTB투자증권 김양재 연구원은 “주주환원 정책 시행 가능성이 커진 점을 주목, 추가 주가 하락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면서 “순현금은 매분기 3조~5조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동사 지분 매각으로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원을 책임질 미드필더 겸 공격수로 꼽힌다.

메리츠증권증권 김준성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해 “신차효과로 3~4월 내수 및 중국 시장에서 보인 판매 호조가 연중 지속될 것”이라며 “2017년 중국 관련 정치적 이슈, 엔진 리콜 등의 악재도 해소돼 현대차 생산 가동률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인센티브 또한 재고 감소와 신차 출시를 통해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시장은 산타페의 현지생산을 시작으로 6~7월 사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연구원은 “2분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5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면서 “2분기에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D램 출하량 증가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받쳐줄 ‘쇄도우 스트라이커’로 삼성중공업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 등도 공격형 수비수로 꼽힌다.

삼성증권이 프라이빗뱅크 100명을 대상으로 고액자산 투자자의 투자 전략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IT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22%가 바이오를 꼽았다. 철강·화학 등 산업재는 17%가 각각 선택했다. 이중 바이오 업종은 투자 회피 종목에서도 2위를(29%) 기록해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외국인 용병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의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의 78%는 해외에 배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2%는 국내 증시가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해외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35%로 가장 높았다.

숨은 후보로는 화장품, 건강관리 등이 거론된다. 키움증권 홍준욱 투자전략팀장은 “지난달 수출부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으로 경기하강 우려가 부각됐지만 하반기에는 선진국 수요증가,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수출과 내수경기의 동반 호조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소형주 및 화장품·건강관리·필수 소비재 등 소비재 주식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월드컵 최고 관심경기는 韓 vs 獨

(6월 27일 오후 11시)

SK텔레콤, 소셜 빅데이터 분석

SK텔레콤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국내 네티즌들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의 한국 대 독일전 경기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4일 자사의 소셜 분석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인사이트’를 통해 월드컵 기대심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리포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인터넷 뉴스·블로그·게시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부터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 6만6583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속한 F조 국가들의 경기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독일이 맞붙는 조별리그 경기에 관한 소셜 버즈량은 3795건이며, 멕시코전은 2621건, 스웨덴전은 2504건 언급됐다. 이는 스페인-포르투갈(980건), 브라질-스위스(717건), 프랑스-덴마크(697건) 등 우승후보가

문되는 국가들의 조별리그 경기와 비교해도 3~5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올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의 여파로 월드컵에 대한 소셜 버즈량은 지난 4월까지 월 평균 7000건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국가대표 최종명단 발표 및 온두라스,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을 거치면서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월드컵 관련 소셜 버즈량만 3만7000건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축구 마니아, 일명 ‘축잘알’(축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축구 마니아층이 즐겨 찾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월드컵 관련 토론이 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 축구리그 슈퍼스타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다.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세리에A 등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기대한다는 언급은 전체 월드컵 관련 담화의 26%를 차지한다.

/김나인 기자 skni@



“아이파크몰에서 월드컵 응원해요”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월드컵 응원전이 열린다. HDC아이파크몰은 오는 18일 열리는 스웨덴 1차전에 맞춰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응원전이 펼쳐지는 그랜드캐노피는 아이파크몰이 증축을 통해 용산역 광장 위로 새로 선보인 야외 옥상 시설이다. 대망의 조별예선 첫 경기를 서울의 밤하늘 아래 무료로 제공되는 맥주와 다채로운 경품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용산 아이파크몰

(SK텔레콤 월드컵 소셜 빅데이터 분석)

조	빅매치	빈도
F조	대한민국 VS 독일	3795
	대한민국 VS 멕시코	2621
	대한민국 VS 스웨덴	2504

·해외 축구팬이 생각하는 가장 인기있는 한국의 상대팀 경기는 당연히 독일전 관심가는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대독점을 할까?

·멕시코전은 필요없어서 필요없고 넘어가는 자정이 아니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공익이기 때문에 시청장에서 카메라를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스웨덴이 그나마 세 팀 중에는 최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는 방법은 스웨덴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멕시코전에서 승부를 보는 수 밖에 없죠

SK Telecom Smart Insight

네이버·다음, 월드컵 생중계 못한다

지상파와 중계료 협상 결렬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과 모바일 IPTV 사이트를 통한 생중계 시청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상파 방송사와 포털 간 중계권료 협상이 러시아 월드컵 개막일인 14일 현재 결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카카오도 “어제(13일)까지만 해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오늘로써 이번 올림픽의 생중계 방송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월드컵의 판권 협상 대표사인 MBC측도 14일 오후 “현재 포털 측과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며 “지상파 3사도 FI

FA에서 중계권을 사오는 입장인데 판매자(지상파 3사)와 구매자(포털)가 제시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이번 월드컵 중계권을 1200억원 수준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약 900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액수다.

다만 월드컵이 시작된 후에도 생중계가 가능은 남아 있다. 한 IPTV 사업자 관계자는 “월드컵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적 축제인 만큼 기금적이면 양측이 양보해서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16강전이나 8강전에 진출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생중

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 실시간 시청은 지상파 3사 채널과 폭TV, 아프리카TV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프리카TV는 포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 포털과 매출 규모 등 여러 면을 비교해 봤을 때 그에 맞는 협상이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는 이번 월드컵 생중계와 관련해 시청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획이다. 시청자는 기호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생중계를 선택해 시청하거나 원하는 BJ(개인방송 진행자)의 중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